

## 2006년 동물약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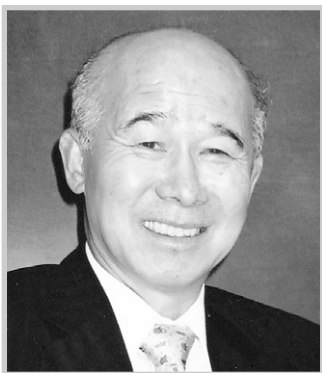
# 약품업계 과다 경쟁지속에 저성장세 유지 예상

— 축산물의 안전성 논란에 대비해야 —

계 속되는 불황이 끝나고 회복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05년도 동물약품업의 경기 동향은 예년과 별다른 변화 없이 저성장이 계속되었다. 2006년도에도 시장을 위협하는 약제도 없고 청신호로 작용할 호재도 없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저 성장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도에는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 2004년도 수준에 머물렀으며 수입 완제품은 5% 정도의 감소 현상을 나타냈던 반면 수입되는 원료나 완제품의 달러 규모는 원료 8%, 완제품은 13%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판매 통계상 수입되는 달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강세 현상이 제품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5년도의 경우, 양돈 양계 및 사료 등 관련 업계가 모두다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약품 업계만이 계속적으로 불황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과다 경쟁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신 정 재**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수입 완제품의 경우, 메리알코리아, 인터베트 코리아, 한국화이자동물약품, 베링거인겔하임 4개 다국적기업이 수입 완제품 시장의 42%를 점유하고 있어 중소 규모의 수입 업체들의 경쟁 심화와 경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업체의 경우 배합사료 첨가제의 마진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료첨가제 주력 업체들이 10대 메이커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배합사료 공장 판매가 2005년까지도 주요한 매출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합사료첨가제 시장에서의 매출과 마진을 감소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필드시장의 과당 경쟁을 초래하였고 배합사료첨가제 시장의 보상시장으로 작용하던 필드시장이 가격 난매로 붕괴되면서 동물약품 업계의 장기적 불황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코스닥 상장 회사들의 매출 맞추기식 영업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동물약품의 가격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이들 매출 상위 랭커들의 역할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동물약품 전제품의 가격이 기준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역시 동물약품 산업은 지속적인 저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마진을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인하여 각 업체별 체감 성장률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축산 경기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부터 계속된 저성장 기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이 배합사료 공장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마진을 저하 그리고 심화된 가격경쟁이 그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구조

적으로 20~30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제품 구성과 영업 정책 또한 동물약품 업계의 장기 저성장 시대의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도에 동물약품이 사회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한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끝없이 무너져 버린 가격 구조를 회복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난매하고 가격을 무너뜨리는 제품 등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가격이 무너진 제품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제품이나 품목정비가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공존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2000년 당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소독약품 수급을 맞추기 위하여 과도하게 허가된 소독약품의 품목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신규로 검역원에서 허가되거나 협회에 신고 되는 제품들인 경우 지나친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제역·돼지콜레라·조류인플루엔자의 철저한 방역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독제의 유효성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 기존 소독제의 효력시험 실시는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다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효성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과다하게 허가된 제품들에 대한 품목정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격 난매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도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기 허가된 소독제에 대한 소급시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잔류와 내성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수산 식품에서 안전성 문제는 크게 유해물질의 잔류 문제와 인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성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잔류 문제와 내성 문제가 사실과 달리 과장되거나 오도되는 경우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동물약품 사용이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규제 강화는 동물약품 산업의 저해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축산 농가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해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이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물약품 뿐만 아니라 축산 업계 전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잔류 문제는 올바른 사용방법 준수와 휴약기간 준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해법을 가지고 있으며 내성 문제는 잔류 문제에 비하여 다원적인 원인과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 내성 모니터링 사업과 신중한 약품 사용을 통하여 내성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통하여 해법을 찾아가야 할 위해 요소로 이러한 위해 요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론 보도 내용들이 사실과 달리 오도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축산인 모두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대처해 나아가지 않을 경우 국내 축산업의 시장을 해외 축산 선진국에 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세 번째 방안은 축산물 안전시스템 강화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항생, 항균제의 사용 제한 대책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대책은 문제의 본질적인 면을 파헤

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각 분야의 살을 깎는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좀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잔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식육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비위생적인 축산물을 출하하는 축산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감수케 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출하하는 축산 농가에게는 상응하는 혜택을 줌으로서 비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줄이고 안전하지 않으면 출하할 수 없다는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약품 사용의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으로 항생물질 보조요법제 개발을 들 수 있다. 일부 축산 현장에서 항생물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항생물질 대체제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은 추출제나 기능성 사료 등으로 시판되고 있으나 현재 관리 체계상 이들 제품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판매됨으로 인하여 우수한 효과를 가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나 효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품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부재에서 원인하고 있으므로 보조요법제로서의 검증과 이러한 제품들의 개발과 연구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토록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중·장기적 연구 사업을 실시하여 의약품의 새로운 분야로서 터전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나 기술이 집적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약품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항

생·항균제 사용을 줄이자는 의론이 비등하고 있고 항생제나 항균제 분야에서 새로운 신제품 개발이 어려운 현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보조요법제 개발에 참여하여 잔류나 내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업필드 개발을 통하여 장기적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물약품 시장의 활력소로서 재기의 계기로 삼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 동물약품 시장의 성장 방안으로는 신제품 개발을 들 수 있다. 동물약품 시장의 공급 과잉과 과도한 가격경쟁은 무분별한 카피(copy) 품목의 개발로 인하여 촉발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가격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양축가로부터의 불신을 초래하는 동물약품 업계의 '악의 손'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카피 풍조는 신제품 개발업체의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물론 가격 인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체의 자체와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법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제품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업체 스스로 3~5개 업체에서 허가한 제품에 대하여는 카피 허가를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이 자전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고 인(허가)을 담당하고 있는 검역원이나 앞으로 품목신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협회에서는 인(허가) 및 신고 창구에서 이를 지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무원칙한 카피 품목의 양산은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 또한 하지 않을 수 없



다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약품 업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약품의 사용 규제나 축산물의 안전성 논란이 가속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향적 대처 없이 풍파를 견뎌 나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변화된 여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 될 수밖에 없는 기업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하여 기능을 강화하여 업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대외적인 여러 난관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설립중에 있으며 동물약품 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의 어려운 현실과 이를 타파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물약품 업계 모두가 합심,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다. **양계**